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1-17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1-17
2021 년 01 월 17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210437523](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210437523)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 년 01 월 17 일

차례

1. [당신들의불평, 우리들의투쟁]	3
2. [뭐지, 채용이생산라인투입했었나?]	4
3. [문을열고모든이를오게두어라]	5
4. [용감한자들의고향, 자유의땅?]	5

조바이든과 미국민민주당을 수호하는 리버럴들과 재계 엘리트들은 연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사태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트럼프가 파쇼적 행태를 보이고 반미국적 선동을 통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논리로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까지 내밀어 하원을 통과시켰다.

그래, 까놓고 말해 맞다. 트럼프는 의회 점거를 선동했다.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들과 트럼프 본인의 행태는 파쇼적 행태나 다름이 없으며, 그들의 행태는 때려부셔야 할 행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사태는 결국 트럼프의 당선으로 최절정기에 도달한, 미국인민들의 삶에 대한 비판과 끔찍한 양극화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파쇼에 휘둘린 것이 아니다. 이때까지 쌓여온 모든 양극화와 찢어지는 가난에 대한 분노가 자신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리버럴들을 향해, 트럼프라는 독재자를 통해 나타났던 것이다.

기성 리버럴들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공화당의 헛소리꾼들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다. 트럼프라는 파쇼가 나타나 있을 때 공화당은 편승했고, 민주당은 안일하게 모든 것을 내주었다. 그리고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한 지금까지도, 솔직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모든 양극화와 파쇼의 대두에 맞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바로 노동자 계급의 조직적 투쟁이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의회주의라는 허상에 맞서 싸워야 한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부르주아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한다. 철인 독재자에게 힘을 실어 주려는 파쇼의 선전 선동을 끝까지 막아내고, 노동자 계급의 단결된 힘으로서 온전한 자유와 평등을 이루어 내야 한다. 노동자 계급은 양극화와 불평등, 탄압을 자신들의 손으로 끝낼 힘이 있다. 이는 국가와 정치인, 어떤 이들의 의지의 총체인 철인 독재자의 손을 밀리는 게 아닌 노동자 계급, 그들만이 이뤄낼 수 있다.

우리는 파쇼에 맞서는, 파쇼의 선전 선동에 혼란스러워져 가는 미국의 노동자 계급의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단결을 외치는 노동조합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인민들의 연대가 승리하리라 굳게 믿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진정 '용감히' 자신들의 집을 온전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것이며, '자유의 땅'에서 자유를 구할 것이다.

” 바이든 취임식 앞 둔 美... 주방 위군 2 만명 배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93175>

1. [당신들의 불평, 우리들의 투쟁]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혐오 댓글이 무성하다. 뭐, 그 혐오 댓글 중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본명으로 댓글을 달는 LG 그룹 정규직 배가놈의 댓글도 있었고, LG 가입장을 내기도 전에 그 입장을 포함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댓글을 달는, 역사와 전통의 댓글 알바도 있지만, 어쨌든 반노동 정서라는 게 있기는 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댓글들 중, 빠지지 않고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댓글이 “떼쓰면 다 되는 줄 아냐”는 말이다. “정규직 시켜 달라고 저런 다”는 공정이들은 글을 제대로 읽고 다시 오라고 두고, “임금 240 만원 달라고 저런 다”는 LG 직원들은 제쳐 두고, LG 가 청소 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했다는 데 갑자기 문재인을 끌고 오는 정치 병자들도 제쳐 두더라도, 저 댓글에 대해서는 해야 할 말이 있다.

떼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떼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그 무엇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기에 노동자들은, 댓글이 어떻게 달리건, 역사적 흑안이 되건, 그 어느 때보다도 투쟁하고 떼쓰고 있기 때문이다.

10 년 전, 홍익대학교에서 130 명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집단해고 당했을 때에 비해 댓글은 더 험악해졌을 수 있다. 그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사상 최대치를 향해 가고,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2018 년 7 월 3 일, 2019 년 7 월 4 일에는 비정규 노동자만으로 10 만 명의 파업 대오를 만들어 냈다. 코로나-19 로 모두가 괴로워 와 중, 더 괴로워야 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이 혹한 속에서도, 여전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노동조합만들었다고 집단해고를 자행하는 LG 자본에 맞서로비농성 31 일, 천막농성 94 일을 계속해 온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있다.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는 철도 비정규 노동자들이 있다. 코로나-19 를 핑계로 한 민주노총 표적 해고에 맞서 1 년 가까이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기내 청소 노동자들이 있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열심히 혐오 댓글을 단다 해도, 댓글로 제 아무리 공정공정하고 울며 “떼를 쓴다” 해도, 그것은 노동 대중의 투쟁을 막지 못한다. 그것은 투쟁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세상은 댓글의 총합이 아니라, 노동하고 투쟁하는 대중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 반노동 정서 심해졌다..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에 쏟아진 혐오” :

<https://news.v.daum.net/v/20210117105858642>

” ‘최강한파’ 에도 거리에서 잠드는 노동자들... ” 일하게 해 달라”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111580?sid=102>

2. [뭐지, 재용이생산라인투입했었나?]

삼성이재용부회장의국정농단파기환송심선고가하루남았다. 우리는이재용이무슨짓을하였든법원이아니라노동자대중이직접그에대한판단을내리고그에따른향방을정해야한다고생각하지만, 어쨌든그것과는별개로우스운일들이계속해서이어지고있다.

이재용부회장의파기환송심재판을맡은서울고등법원형사 1 부정준영부장판사는 2019 년 10 월첫공판에서” 심리중에도당당히할일과할수있는일을해 주기바란다” 거나” 만 51 세의이건희총수는낱고썩은관행을버리고사업의질을높이자는’ 삼성신경영’ 을선언하고위기를극복했는데똑같이만 51 세가된이재용총수의선언은무엇이고또무엇이어야하나” 는등재판을하자는건지이재용팬미팅을하는건지모를발언을한바있다. 내일판결을선고하는바로그사람이맞다.

이런와중에부르주아들의눈물겨운연대역시줄을잇고있다.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 15 일이재용부회장을선처해달라는탄원서를제출하며” 한국형혁신벤처생태계를만들기위해서는이부회장의확고한의지와신속한결단이필수적” 이라고한바있고,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 19 위기를극복하고우리나라경제생태계의선도역할을할수있도록이부회장이충분히오너십을발휘할기회를줘야한다” 며재판부에탄원서를제출했다.

누가보면이재용부회장이삼성에서만드는모든물건들을하나하나직접만들어내느라, 이재용부회장이감옥에가면삼성은물건을만들사람이없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게끔한다. 이재용부회장이생산라인에투입되었던것을우리만모르고있었던것인가?

이재용이감옥에가든부친을따라지옥에가든별상관없다. 재화를생산해내는우리노동자들은그가있든없든상관없이계속세상에필요한물건들을생산해낼것이며, 그가있든없든해야할일을계속해나갈것이다. 다만그가저지른노동자탄압과악행들에대해서는이번에법원이무어라판단을하든말든언제가되었고반드시노동자대중이노동자대중의손으로직접그값을치를것이라는사실하나만은명심해두기를바란다. 그러니내일집행유예가선고되어웃으며나오든, 징역형을살게되든부디일회일비하지말고묵묵히그다가울심판을기다릴일이다.

” 이재용파기환송심판사” 재판중에도기업총수로할일하라”” :

[https:// www.hankyung.com/ society/ article/ 201910251340i](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251340i)

” 재계” 이재용선처해달라” 잇따라탄원…삼성은노심초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3. [문을열고모든이를오게두어라]

한국의난민신청인정률이통계가작성된이래처음으로끝내 1% 미만까지떨어졌다. 통계에따르면 2020 년의 1 월 ~10 월난민인정률은 0.8% 로, 역대최저수준이다. 코로나사태와겹쳐난민문제가국제적으로악화된상황에서도문은더욱굳게잠가지고만있다. 여기에더하여정부는이미지난 12 월에난민의재신청절차를강화하는난민법개악을예고한상태이다.

이렇듯난민수용이거의없는한국에조차난민에대한혐오는공공연하다. 우파들은난민들이돈을벌러위장해들어오는, 일자리를빼앗는, 테러리스트무슬림일뿐이라고내뱉으며혐오를조장한다. 이비난은근거없는것이며그들또한그저자본주의와제국주의에의한희생양일뿐이다. 외국인의범죄율은내국인보다낮으며불체자일 경우에는오히려더욱그러하다. 우파들의목적은난민을제물로삼아네셔널리즘과혐오차별의선전을강화하며노동계급을분노를외부의악자에게로돌려분열을도모하는것일뿐이다

제국주의와자본주의에대항하고자하는모든노동계급은국제노동계급과연대해야하며그렇기에그희생양또한도울수있어야만한다. 우리는난민혐오에단호히반대하고난민들의안식처를위해우파와정부에맞서투쟁해야만한다.

정부의반난민정책을규탄한다. 국경을열고모든난민을받아들여라.

” 작년 1~10 월난민신청인정률 0.8% 로역대최저” :

[https:// www.mk.co.kr/ news/ society/ view/ 2021/01/42578/](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1/42578/)

4. [용감한자들의고향, 자유의땅?]

미국에서벌어지는일들이심상치않다. 지난트럼프지지자들의의회점거폭동을시작해서연일’ 자유민주주의그자체’ 라고추앙받는미국의수도인워싱턴 D.C 는긴장감이웃도는상황에처해있다. 상술한의회점거폭동도모자라, 이제는대통령취임식에주방위군을동원하고주요시설에도주방위군을배치하는것까지! 그들이얼마나절박한상황인지여실히보여주는것만같다.